'92. 1월 휘발유가격 대책

-동력자원부-

○ 지난해 9월 1일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휘발유 가격은국제원유가(*Dubai, Oman*유가격 평균) 및 환율에 연동되어 조정되어 있음('91.11월 7.1% 인상, 12월 2.4% 인하).

○ 그러나12월들어 국제원유가가 폭락하여 휘발유가격의 기준이되는 *Dubai* 와 *Oman* 평균가가 지난해 11월에는 18.6$/B 수준에서 12월 1~27일까지의 평균을 보면 15.5$/B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환율등의 변수가 있으나, 특소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중에는 약 12% 수준의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휘발유가격을 추가인하하는 방안과 '92년도 경제운용방안에 따라 현재의 가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양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가격인하가 물가안정 및 가격자유화 취지에 부합하는 면도 있지만 당분간 현 가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하게된 배경은,

첫째, 지난해 12월현재 국제유가동향은 이례적 현상을 보이고 있어 '92년중 원유가는 오는 2월 개최될 *OPEC* 감시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실한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별첨), 현재의 이례적 현상에 맞추어 휘발유가격을 조정하기에는 다소 난점이 있으며,

둘째, '92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제수지 적자를 80억달러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소비절약을 추진키로하고 내년도 석유수입증가율을 10% 이내로 줄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가격 수준은 10년전에 비해 67% 수준('81 : 740원/ℓ → 497원/ℓ)에 불과하며, 주요 석유소비국과 비교시에도 싸며, 최근의 교통체증에 따른 막대한 휘발유 손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휘발유가격은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금년도 정유사의 경영성과는 걸프전의 손실보전금의 일부 미보전 문제('91년말 : 680억원)와 지난 9월이후 원유가 및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산업용 및 수송용인 경유, *B-C*유 등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발생될 추가부담이 2,600~2,700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기 때문임.

○ 이에따라 '92. 1월중에 공장도가격은 약 4% 수준 인하되어 종전고시가 수준이 될 것이나 소비자가격은 현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 기금으로 흡수될 재원은 1월중 약 80억원 수준이 될 것이며 이 재원은 정유사의 미처리 손실과 상계할 계획임

휘발유 특별소비세율 인상

정부는 최근 국제원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1월에 휘발유가격의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 실정에서 휘발유의 소비가 매년 30% 이상씩 폭증하고 있어 국제수지 적자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소비성 유종인 휘발유가격을 계속 인하하는 것보다, 국내 휘발유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싼점을 감안하여 에너지소비절약 차원에서 가격 인하요인의 일부를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월 부터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법상 최고 한도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키로 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20%에서 탄력세율 의상한선인 130%로 10%P 인상하고, 무연휘발유는 현행 100%에서 109%로 9%P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특별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휘발유가격 인상요인이 약 4% 발생하게 되지만, 현재 국제원유가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특소세율이 인상되어도 소비자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번 휘발유특소세율 인상으로 인해 '92년도 특별소비세징수액은 연간 약 910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이며, 이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유용하게 충당될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현재의 국제원유가격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월말까지 환율등에 변수가 있으나 특소세를 인상하여 흡수하고도 다소간의 휘발유가격 인하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 동자부는 향후 국제원유가격 전망 및 소비절약추진등 제반요인을 종합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 연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유사 손실보전 미지급금의 일부 지급

○ 걸프 사태 손실보전 미지급금이 '91.12월현재 약 1,030억원이 남아있어 석유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1 석유사업계획 운용계획상 불용이 예상되는 350억원을 전용하여 걸프 사태 미지급금을 상환키로 하였음. 그러나 이 조치이후에도 아직도 680억원이 남게 되며, 이외에도 '91. 9월이후 국제원유가가 상승하여 원유수입원가가 국내유가기준(17.7$/B, 730원/$)을 상회하고, 특히 환율이 연초 719.2원/$에서 연말 765원/$까지 약 45.8원/$ 정도 급등하여 환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약 2,600~2,7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원유가 및 환율 변동 추이

	유가기준	'91. 9	'91.10	'91.11	'91.12.1~27
-원유도입가($/B)	17.7	17.40	18.11	18.94	19.67
-환 율(원/$)	730	743.85	753.26	757.55	761.36